

## 衣服의 身分象徵性과 社會心理學的 變因과의 相關研究

—서울의 家庭主婦層 中心으로—

李 錦 實·姜 薰 遠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s Symbol of Clothing and Social-Psychological Variables

Keum Sil Lee, He Won Kah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 Se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interests in the status symbol and the exhibition need and status inconsistency.

The exhibition need was measured by Murray's statements on need and some items selected from The Need Diagnosis Scale of Jaung-Kyu Whang. Status inconsistency was measured by the same criteria of Lenski. Three aspects of clothing interests—the status symbol, the fashion and the exhibitionism—were assesse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housewives in Seoul. Data from 511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chi^2$ -tests.

The results were:

- 1) The exhibition need was positively related to interests in the status symbol and exhibitionism of clothing.
- 2) Status inconsistency was positively related to clothing interests in the status symbol and fashion.
- 3) The degree of clothing interests in the status symbol and fashion were also positively related to the clothing expenditure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sample.

### I. 서 론

衣服은 無言의 言語로써 그것을 입은 사람의 性, 年齡, 職業, 社會, 經濟的 地位, 價値觀, 性格등을 표현하여 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를 평가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의복이 지닌 象徵的 意味는 더욱 크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의생활에 있어서 눈에 띠는 변화의 하나는 의복에 대한 지나친 사치풍조 및 쇠신유행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하나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과 그로 인한 소비성향의 향상을 들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工業化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사회가 됨으로써 의복이 사회에서 개인이 인정받고 또 는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의복의 사치성을 의복의 身分象徵의 重要性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련된 변인을 규명함으로써 의복행동의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의생활 교육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 문현적 배경

본 연구와 관련되는 社會心理學的 要因 및 衣服行動에 관한 문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과시욕구(誇示欲求 : Exhibition Need)

욕구란 어떠한 사물이 부족하다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특정한 행동의 成就에 대한 要求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며, Woodworth<sup>1)</sup>는 욕구를 유기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하였다.

欲求는 내적인 과정 및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생기며 이러한 욕구는 각기 독특한 감정을 수반하며 이에 따라 欲求의 種類가 구분된다. 욕구의 분류에 있어서는 학자들간의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으나 크게 두 次元의 욕구, 즉 生理的 또는 제 1 차적 欲求와 心理·社會的 또는 제 2 차적 欲求로 나눌 수 있다.

Murray<sup>2)</sup>는 제 2 차적 욕구를 28개로 나누었고 그 중 하나가 과시욕구이며, 이는 야망과 권력, 성공이나 명성을 얻으려는 활동에 관계되는 욕구이다. 誇示欲求는 남의 주의를 끌어 인상에 남게 하려는 자기선전적인 욕구로써 괴상한 옷이나 색이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남의 눈을 끈다든가, 또는 유모어등으로 話題의 主導權을 잡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욕구에 대하여 고흥화<sup>3)</sup>는 인간내부에 욕구가 생기면 이는 인간을 繫張狀態에 놓이게 하며 이러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 B. 지위 불일치(地位 不一致 : Status Inconsistency)

예로부터 사회학자들의 큰 관심사였던 社會階層研究는 기능과 역할이 분화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多次元의 사회계층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다차원적 관점에서 사회계층을 볼 때 문제시 되는 것이 地位不一致이다.

지위불일치의 개념은 개인의 優劣를 구분하는 지위속성, 즉 교육, 직업, 종교, 사회적 권리, 인종, 혈연지연적 신분지위등이 한 사회의 위계질서 내에서 얼마나 接近 또는 상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

시 말하면 지위불일치란 서로 위계적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고 기대되는 地位次元들간의 不均衡狀態를 말한다.

선행연구결과<sup>4)-6)</sup>를 보면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한 社會相互作用 및 불안정한 自我像(self-image)을 가지며, 자기 자신의 期待에 어긋나는 보상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위불일치에 대한 연구는 Lenski<sup>7)</sup>가 시작하였으며, 그는 지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좀 더 進步의이고 社會變動을 희망하는 경향이 짙다는 결론을 내렸다. Jackson<sup>8)</sup>은 地位不一致와 心理的壓迫感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인종의 차이가 직업이나 교육의 지위보다도 더 크게 심리적 압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고, 또한 남자는 교육보다는 직업이, 여자는 남편의 직업보다는 교육이 심리적 압박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C. 신분상징성(身分象徵性 : Status Symbol)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간과 사회의 相互關係를 중요시하는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ism)이다. Mead<sup>9)</sup>는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때에 자기 자신이 내리는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때에 意味있는動作이나 象徵이 개입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무엇이 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징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인간상호작용의 중요한 일면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징이 되는 것중의 하나를 衣服이라고 볼 수 있다.

Barber와 Lobel<sup>10)</sup>의 연구결과는 가장 높은 계층보다도 그 바로 밑의 계층이 제일 값비싼 의복을 입고 의복을 富와 호화로운 생활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Rosencranz<sup>10)</sup>는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지능등이 높을수록 衣服에 대하여 더 많이 認知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Ryan<sup>11)</sup>은 의복을 입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의 身分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의복을 통해서 개인을 認識한다고 하여 의복의 身分象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Gate<sup>12)</sup>의 연구에서는 지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가정주부들의 특징적인 경향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과 새로운 유행을 좋아하고, 분수에 넘치는 값비싼 상점에서 옷을 구입하고 의복으로써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이 개인이 원하는 일정한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그리고 그 집단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自己表現의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볼 때 衣服에 대한 態度 및 行動은 社會階層에 따라 다르므로 의복은 개인의 身分을 象徵하는 役割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복을 특히 신분상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급장소에서 구입한 값비싼 의복을 착용한다고 볼 수 있어, 의복의 신분상징성을 의복의 사치성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 D. 유행(Fashion)

유행이란 한 주어진 시기에 널리 퍼지고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스타일이며, 주기적인 변화를 가진다는 면에서 mode와 구별된다.<sup>13)</sup> 또한 Ryan<sup>11)</sup>은 오늘날 유행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유를 공업기술의 변화, 도시 중심지의 확장 및 인구의 동성으로 보고 있다.

Anspach<sup>14)</sup>는 유행은 社會의 現狀으로써 불안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주고, 선망과 자대감이 섞여 있는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에 필요한 것이며 한 나라의 발전이 변화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에게 변화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고 하여 유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Coblinger<sup>15)</sup>의 유행을 따르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남을 위하여 옷을 입으며 유행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행을 따르는 것을 지위와 권위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에 대한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강혜원<sup>16)</sup>의 의복행동 연구결과에서 유행에 더 관심이 높은 사람은 外向的인 성격을 가졌고, 남자는 경직성이 높을수록 유행에 관심이 낮은 반면, 여자는 경직성이 높을수록 유행에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볼 때 流行은 공업기술의 발달로 社會階層移動이 비교적 쉬운 사회에서 그 변화속도가 빠르며, 이러한 우리사회에서는 의복을 지위와 권위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위의 상승적 이동을 꾀하려는 집단이 유행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III. 가설 및 용어정의

의복의 身分象徵性을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A. 가 설

1. 誇示欲求가 많은 사람은 衣服의 身分象徵性에 관하여 關心이 높을 것이다.
2. 誇示欲求가 많은 사람은 衣服의 誇示性에 관하여 關心이 높을 것이다.

3. 地位가一致하지 않는 사람은 地位가一致하는 사람보다 衣服의 身分象徵性에 관하여 關心이 높을 것이다.

4. 地位가一致하지 않는 사람은 地位가一致하는 사람보다 衣服의 流行에 관하여 關心이 높을 것이다.

#### B. 용어 정의

1. 誇示欲求 :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로써, 혀영심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나 노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이 욕구가 많다.

2. 地位不一致 :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교육, 직업, 경제수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태.

3. 衣服關心 : 의복에 대한 태도, 행동 및 의복선택의 습관을 의미하며 아래의 변인을 포함한다.

① 身分象徵性 : 의복을 자신의 신분(교육, 직업, 경제수준)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태도로써, 의복의 가격을 신분평가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② 流行 : 의복을 선택할 때 유형형을 고려하여 유행과 보조를 맞추려는 태도.

③ 誇示性 : 눈에 띄는 색이나 스타일의 의복을 선택함으로써 주의를 끌려는 태도.

### IV. 방법 및 절차

#### A. 도구선정

##### 1) 사회심리학적 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社會心理學變因은 誇示欲求 및 地位不一致이며 그 測定方法은 아래와 같다.

##### ① 과시욕구 검사

우리나라에는 성인을 위한 표준화된 과시욕구검사가 없으므로 Murray<sup>2)</sup>의 욕구검사 중 과시욕구에 관한 문항을 번역하였고, 이 외에 황정규의 욕구진단검사<sup>17)</sup> 중 과시욕구에 관한 문항을 2개 첨부하여 총22문항의 5단계 평정법검사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 ② 지위불일치 측정도구

지위불일치는 교육, 직업 및 경제의 세 측면의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Jackson<sup>4)</sup>의 이론에 따라 교육정도는 응답자 자신의 것을, 직업은 남편의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경제수준은 두 종류로 구분하여 1)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主觀的인 評價 및 2) 家內物品 소유정도에 의한 客觀的인 評價를 포함한다.

##### 2) 의복관심 검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의복관심은 의복의 신분상징

〈표 1〉 가내 물품 소유율

용품항목	소유율(%)	용품항목	소유율(%)
라 디 오	100	연 탄 난로	61
테 레 비	100	석 유 난로	76
전 축	67	전 기 곤로	62
전 화	79	가스 텐 치	54
피 아 노	33	전 기 미 서	79
사 진 기	79	전기 다리미	99
선 풍 기	97	제 봉 틀	79
전 기 밤 솔	96	세 탁 기	41
전 기 오 본	45	에 어 콘	13
냉 장 고	84	자 동 차	14

소유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Guttman 척도법에 따라 소유율 85% 이상인 것과 15% 미만인 것 그리고 척도 구성상 오차가 많은 것(피아노, 연탄난로, 제봉틀)을 제외한 10항목을 scalogram으로 분석한 결과 재생산계수가 .71로 비교적 의미 있는 척도구성이 가능하였으므로 0점~10점의 점수를 부가하였다.

3)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화된 지위불일치 4요소의 각 단계의 인원수를 계산한 후, 그것의 백분율 점수를 얻어 그 점수의 평균치를 각 단계의 부가점수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 직업수준의 점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직업수준의 빈도분포와 각 단계의 부가점수  
n=511

점수	인원수	Percentile score	부가점수
1	6	0~1.1	1
2	12	1.2~3.4	2
3	12	3.5~5.8	5
4	7	5.9~7.1	7
5	178	7.2~42	25
6	125	42.1~66.4	54
7	40	66.5~74.3	70
8	58	74.4~85.6	80
9	73	85.7~100	94

4) 개인의 지위불일치 정도를 점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3개의 지위불일치 요소의 점수의 평균치를 냉후 아래의 공식으로 지위불일치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지위불일치 정도가 낮다.

$$\text{공식} : 100 - \sqrt{\sum(x_i - \bar{x})^2}$$

성, 유행 및 과시성의 세 측면을 포함하며, 각기 10문항씩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한 검사는 Chen<sup>18)</sup>과 김광경<sup>19)</sup>의 것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된 것이다. 유행에 관한 검사는 강혜원<sup>16)</sup>의 문항 중 1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의복의 과시성에 관한 검사는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하였다.

이상의 총 30문항은 무작위적으로 배치하였고 5단계 평점법을 사용하였다.

### 3) 의복현황 검사

의복관심을 보충하는 자료로써 의복에 관한 구매장소, 소비수준 및 소비동기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 7문항이며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하였다.

### B.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511명이며 그 연령분포를 보면 30세~49세가 전체의 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73%이었으며, 경제수준도 중산층이 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C.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가정주부 3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된 설문지를 1978년 3, 4월에 거쳐 서울시내 2곳의 사립 및 2곳의 공립국민학교 학부형에게 500부, 개별적으로 480부를 배부하여 총 82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511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설문지 응답에 필요한 시간은 30분이었다.

### D. 통계처리

地位一不致와 衣服關心變因間의 관계는  $x^2$ 계수로 검증하였고, 이 외의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적률상관계수로써 검증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빈도분포 및 평균치,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본 논문의 지위불일치 측정방법은 Lenski<sup>7)</sup>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 교육정도는 無學에서 대학교 졸업까지의 11단계로, 직업수준은 노동자에서 전문직까지의 9단계로 등급화하였다.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인 경제수준은 9단계로, 가내물품 소유정도에 의한 객관적인 경제수준은 11단계로 等級化하였다.

2) 가내물품 소유정도의 척도구성은 Guttman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척도구성과정을 보면, 먼저 511명의 조사대상자중 무작위적으로 100명을 선출하여 가내 물품

### E. 연구의 한계점

1)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층이 30대, 40대에 치우쳐 있었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종류층에 속하는 사람 많았다.

2)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심리변인 검사 및 의복행동검사는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것이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으로 이 연구결과의 확대해석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V. 결 과

### A. 과시욕구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과시욕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22점~110점이었으나 실제의 점수는 24점~103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아 40점~69점 사이를 약 85%가 차지하였다. 의복관심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0점~50점이었으나 실제점수는 신분상징성은 13점~45점, 과시성은 12점~43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분상징성은 20점~29점 사이를 약 70%, 과시성은 20점~34점 사이를 약 90%가 차지하였다.

과시욕구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표 3>에 상관계수로써 제시하였다.

<표 3> 과시욕구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의복변인	신분상징성		과시성
	r	r	
사회심리변인			
과시욕구	.46**	.35**	

\*\* .01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3>에 의하면 과시욕구와 의복의 신분상징성과는  $p < .01$ 수준에서 有意的인 正의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시욕구는 의복의 과시성과도  $p < .01$  수준에서 有意的인 正의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의복의 과시성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로써 과시욕구와 의복의 신분상징성 및 과시성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 2]는 공정되었다.

### B. 지위불일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

地位不一致는 두 종류의 經濟水準을 사용하였다. 즉

지위불일치(I)은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主觀的인 評價를 사용하였고, 한편 지위불일치(II)는 응답자의 가내물품 소유량에 의한 客觀的인 評價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위불일치(I)(II)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50점~100점 사이를 약 90%가 차지하였고 지위불일치 정도는 낮았다.

지위불일치와 관련된 의복관심변인인 신분상징성의 분포경향은 유령의 분포경향과 비슷하였으며, 실제의 점수범위는 11점~44점이었으며 20점~34점 사이를 84%가 차지하였다.

지위불일치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조사대상자 중에서 지위불일치 점수가 높은 사람 20%, 낮은 사람 20%만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그 이유는 지위불일치의 점수분포가 중간점수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점수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중간층은 삭제하였다. 그러나 지위불일치(I)에 대하여는 computer자료처리의 어려움때문에 높은 집단 19%, 낮은 집단 16%의 대상자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4> 지위불일치와 의복의 신분상징성의 관계

지위불일치	지위불일치(I)			지위불일치(II)		
	상	하	합계	상	하	합계
				상	하	합계
신분상징성	36	17	53	40	24	64
하	59	64	123	64	75	139
합계	95	81	176	104	99	203
	$\chi^2 = 5.939^*$			$\chi^2 = 4.750^*$		
	$df = 1$			$df = 1$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5> 지위불일치와 의복의 유령과의 관계

지위불일치	지위불일치(I)			지위불일치(II)		
	상	하	합계	상	하	합계
				상	하	합계
유령	48	22	70	53	25	78
하	47	59	106	51	74	125
합계	95	81	176	104	99	203
	$\chi^2 = 9.965^{**}$			$\chi^2 = 14.169^{**}$		
	$df = 1$			$df = 1$		

\*\* .01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4>에 의하면 지위불일치(I)과 (II)에 있어서 지위불일치의 정도와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대한 관심

사이에는 다 같이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지위불일치 정도가 높은 집단은 지위불일치 정도가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표 5>에 의하면 지위불일치(I)과 (II)에 있어서 지위불일치 정도와 의복의 유행에 대한 관심사이에는 다 같이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지위불일치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지위불일치 정도가 높은 집단은 의복의 유행에 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반면 지위불일치 정도가 낮은 집단은 의복의 유행에 관하여 낮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써 지위불일치와 의복의 신분상징성 및 유행에 대한 관심과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 4]는 긍정되었다.

### C. 의복변인간의 상호관계

전체 의복변인사이의 상호관계는 <표 6>과 같으며 서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높은 상관을 갖지는 않는다.

<표 6> 의복변인간의 상호관계

n=511

의복변인		의복관심			의복현황	
		신분상 징성 r	유행 r	과시성 r	구입 장소 r	직물 r
의복관심	유 행 과 시 성	.51** .40**		.50**		
의복현황	구입 장소 직 물 가 격	.11* .12** .15**	.21** .18** .22**	.08 .04 .16**	.36** .32** .35**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 .01 수준에서 유의적임.

<표 6>에 의하면 의복관심의 3변인사이에는  $p < .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높은 사람은 의복의 유행 및 과시성에도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둘째로 의복현황의 세 변인사이에는  $p < .01$ 이 수준에서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다.

셋째로 의복관심과 의복현황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그 상관계수는 극히 낮았다. 1) 의복의 신분상징성은 구입장소와  $p < .05$  수준에서, 직물 및 가격과는  $p < .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었다. 2) 의복의 유행은 구입장소 및 직물

가격의 세변인과 모두  $p < .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3) 의복의 과시성은 소유의복의 가격과는  $p < .01$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 F. 의복현황

<표 7>은 응답자의 스웨터 구입장소의 선택 이유이며 <표 8>은 뜻밖에 생긴 돈 15만원으로 투피스 1벌을 장만한 주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이다.

<표 7> 의복 구입장소의 선택 이유

n=511

선택 이유	%
품질을 믿을 수 있다	34
생활정도에 맞는다	24
선택의 범위가 넓다	16
경찰제이므로 사기 편리하다	11
값이 싸다	10
고급스럽다	3
기타	2

<표 8> 15만원으로 투피스 한벌을 장만한데 대한 응답자의 평가

n=511

응답자의 평가	%
허영심이 많아서	34
비싼옷이 품질이 좋아 오래입을 수 있어서	32
그정도의 돈은 주어야 좋은 옷을 살 수 있으니까	16
열등의식에서 탈피해 보고 싶어서	7
제정신이 돌아서	6
옷을 잘 입으면 대우를 받으니까	3
기타	2

## VI. 논의

衣服의 身分象徵性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세가지 측면에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A. 과시욕구와 의복행동

誇示欲求가 많은 사람은 衣服의 身分象徵性, 流行 및 誇示性의 세 측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은 남을 의식하며 남의 눈에 띄일 수 있는 것으로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對人關係에 개입되는 衣服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은 開放的이고 社交의 인 性格의 소유자로 볼 수 있어 外向의인 性格의 사람이 最新流行型을 좋아하고 이를 따른다는 강해원<sup>10)</sup>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여 준다고도 풀이될 수 있다. 한편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은自己宣傳의이고 노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써 이러한 성격이 의복에도 그대로 과시성으로 반영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성격특성의 하나인虛榮心에서 의복의身分象徵性을 중요시 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 B. 지위불일치와 의복행동

地位不一致程度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身分象徵性과 流行에 관심이 높았다. 이는 지위와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복을 좋아하고 값비싼 상점에서 의복을 구입하려 하며 새로운 유행형을 좋아한다는 Gate<sup>12)</sup>의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이는 여자들이 지위와 권위를 얻는 수단으로 유행을 따른다는 Coblinger<sup>15)</sup>의 연구결과 및 사회계층 이동을 원하는 집단이 유행을 더 따른다는 Barber와 Lobel<sup>16)</sup>의 연구결과도 지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流動的인社會속에서 많은 사람들이心理的不安感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정한 자아상을 가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의복행동에 있어서 유행을 따른다거나 비싼 고급품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동일시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된다.

이 논문에서는 지위불일치를 (I), (II)로 나누어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을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및 객관적인 평가로써 분석하였다. 그러나 (I), (II)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신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비교적 쉽게 경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지위불일치 정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할 때의 통계처리방법의 한계점은 조사대상 전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점수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선정하여 검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변인에 대하여 분석방법을 다르게 한 앞으로의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C. 의복변인간의 상호관계

의복의 신분상징성, 유행 및 과시성에 대한 관심은 서로 의미있는 正的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의복현황인衣服購入場所, 所有衣服의 織物, 價格도 서로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또한 의복 관심변인과 의복현황과의 관계를 보면 신분상징성 및 유행은 의복현황의 세변인 모두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나, 그 상관계수는 낮았고, 한편 과시성은 의복의 가격하고 단은 낮

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의복의身分象徵性과流行이 서로 의미있는 상관이 있는 것은 최신 유행형을 따르는 것이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는 Horn<sup>18)</sup>의 진술을 뒷받침하며, 한편 오늘날 최신 유행형이라는 것이 고급품의 비싼 가격의 의복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복의 신분상징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최신 유행형을 따른다거나 고급품의 비싼 가격의 의복을 입는 행동을 하게 되며 이것을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사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의복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특정한 의복구입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가 “품질을 믿을 수 있다” “생활 정도에 맞는다”가 으뜸되는 이유였으며, 이는 조사대상이 어느정도合理的인 衣服選擇 및 購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때 34%의 대상자가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장소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고급품을 파는 곳에서 품질을 믿을 수 있는 의복을 구입하는 사람이 라고도 풀이 할 수 있다.

둘째로, 뜻밖에 생긴 돈 15만원으로 투퍼스 한벌을 장만한 주부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문의한 것은 간접적으로 응답자 자신의 비싼옷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볼 것이다. 이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허영심이 많아서”와 “비싼옷이 품질이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다”에 대답하였다. 이는 가정주부들이 비싼옷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의복이 값비싼 것 이어야만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많은 탓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러므로 의복생산에 있어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의생활에 있어서 유행되는 값진 의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분수에 맞고도 때에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리므로 의복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의복의 올바른認識을 하게 함이 중요하다.

둘째로, 의류생산업자들은 최신 유행형, 고급품만을 일률적으로 생산한다든가 또는 값은 싸지만 품질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양한 스타일의 품질좋은 중간가격의 중산층을 위한 의복을 생산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인용문헌

- 1) Woodworth, Robert. S., *Dynamic Psychology*,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18).
- 2) Murray, Henry A,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4).
- 3) 고흥화, 현대 심리학, 서울 : 범문사, (1976).
- 4) Jackson, E.F., Status Consistency and Symptoms of St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7(1962).
- 5) Homans, G.C.,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tcourt, Brace & World (1961).
- 6) Goffman, I.W., Status Consistency and Preference for Change in Power Distrib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June (1957)
- 7) Lenski, G.E., Status Crystallization: A non-vertical Dimension of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Aug. (1954)
- 8) Mead, G.H.,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 9) Barber, B. and Lobel, L.S., Fashion in Women's Clothes and the American Social System, *Social Forces*, 31:Dec. (1952)
- 10) Rosencranz, M.L., *Clothing ioncept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2)
- 11)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1966)
- 12) Gate, S., Ruth, E., Clothing Behavior Associated with Types of Mobility, and with Extrinsic-reward Orientation, Among a Specific Group of Non-Employed W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60)
- 13)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2nd Edi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 14) Anspache, Karlyne, *The Why of Fash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1967)
- 15) Coblinger, W.G., Feminine Fashion as an Aspect of Group Psycholog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50)
- 16)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연세대학교 대학원, (1974)
- 17) 황정규, 옥구진단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1968)
- 18) Chen, Ji-Ho, Clothing Attitudes of Chinese and American Colleg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0)
- 19)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